

# 녹색건축인증 전면 개정: 녹색건축인증에서의 통합계획과 관리

김유진 KICT 건축연구본부 전임연구원

## 들어가며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는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을 목표로 건축물의 입지 계획부터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종합 평가하는 인증 제도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하여 G-SEED 2016 인증기준 평가항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2022년 제도 20주년을 맞이하여 인증기준 전면 개편을 위한 논의 및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전문 분야 체계 전환 계획 아래 인증항목별 개선 및 강화를 위해 현재 개정 작업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통합계획과 관리(가칭) 분야의 개정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녹색건축 인증제도 전문 분야 개편 방향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로 녹색건축 역시 특정 분야의 역할에 치중되지 않고, 모든 요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건축물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통합설계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녹색건축인증은 자율인증제도이나 국가적 의무사항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인증 건축물이 디자인적 요소나 혁신적 설계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황들을 종합하여 기존 7개 전문 분야에서 목적 중심형의 4개 전문 분야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계획과 관리(Integrated Design and Management)’라는 전문 분야를 통해 녹색건축 전체 프로세스 고려와 건물 특성 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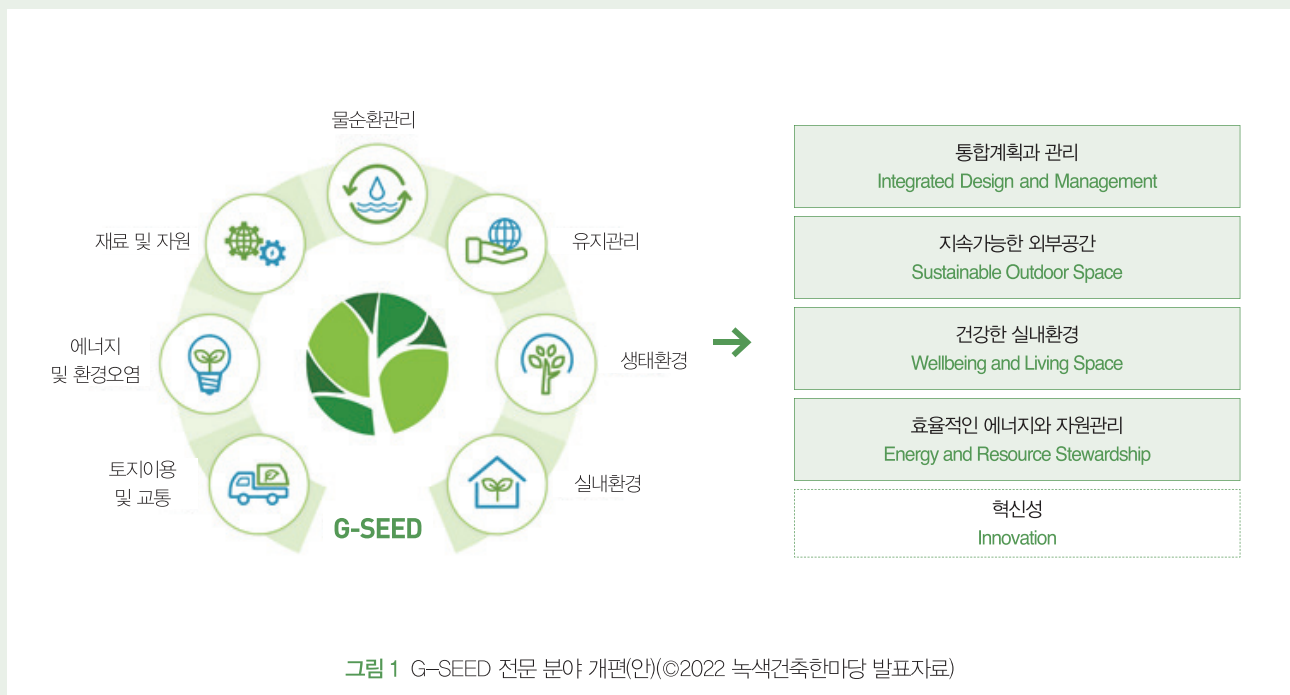


그림 1 G-SEED 전문 분야 개편(안)(©2022 녹색건축한마당 발표자료)



그림 2 통합계획 및 관리 전문 분야의 목표(©UN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통합계획과 관리

전문 분야 '통합계획과 관리'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와 폐기 및 재생까지 건축물 전 생애 기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설계방향수립(가칭)'이라는 평가항목 신설을 통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법적의무사항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만이 가질 수 있는 가시적, 직관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 방향 수립 장려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ID(혁신적인설계) 항목이었던 '녹색건축인증 전문가'를 본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인증을 고려하지 않아 생기는 현실적 문제의 개선 및 통합설계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녹색건축인증 전문가의 설계 및 시공 참여에 따라 녹색건축의 질적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건설 현장의 친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소음/비산먼지/폐기물 및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건물 특성(규모, 용도, 관리방식 등)과 적용 설비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이고 일반화된 유지관리 매뉴얼의 유무를 평가하는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항목(현 유지관리 전문 분야)을 건축물 제반 시설 및 설비의 운영·

관리 방법에 대한 전자문서 마련과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등 보관방안 관련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화하여 당초 의도했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최대 효율 발휘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세대 내의 제반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전자문서화와 정보처리시스템(HAS 및 IoT 기술 등) 활용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정보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여 활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품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는 항목과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축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오염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뿐 아니라 재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연계 방안 등 녹색건축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평가항목에 대한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를 통해 좀 더 국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제도로의 도약과 국가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자료

- UN총회(2015),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2), 2022 녹색건축한마당 발표자료 <녹색건축인증 개정방향>